세계관
발표논문 01

네트워크 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삶을 위한 교회의 역할: 위기를 기회로

백유미 카이스트 바이오 뇌인지 공학과 석사과정

네트워크 과학(network science)은 네트워크의 구조, 성장, 변화 과정 등을 네트워크 구성요소(components)인 노드(node)와 노드와 노드의 연결을 나타내는 엣지(edge)로 나타낸 네트워크 그래프(graph)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네트워크 자체의 속성 뿐 만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 생물학, 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네트워크 구조의 틀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네트워크 과학은 대표적으로 인터넷 웹, 페이스 북, 인간관계 망, 생물의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 뇌의 신경망 등을 네트워크로 표현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는지, 나아가 네트워크가 특정 구조를 가지는 이유와 이로 인해 발현되는 특정 현상에 대한 매커니즘 이해를 목표로 연구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과학은 복잡한 시스템을 각 구성요소들의 연결을 통해 표현함으로 시스템 수준에서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제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주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

네트워크는 위상구조(topology)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네트워크인,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와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로 표현할 수 있다. 무작위 네트워크는 정적인 네트워크로 고정된 수의 노드에 무작위적인 연결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로, 특정 노드간의 연결에 선호성이나 적합성이 고려되지 않다. 반면에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척도 또는 대표할 수 있는 특정 노드의 연결개수(degree)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 불균일한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특히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는 무작위 네트워크에서는 볼 수 없는 소수의 허브 노드(연결지수(degree)가 높은 노드)가 존재하다. 허브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중심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고,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통계적으로는 그 숫자가 적지만 높은 연결도를 통해 사회 네트워크 전체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개인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인물 중에서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를 따르던 광범위한 성도들을 지녔던 사도 바울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허브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선호적인 연결이 존재해야 하다. 이러한 선호적 연결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면, 특정 노드에 연결이 많이 일어나 허브노드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위상구조를 가진 네트워크는 우리 일상인 인터넷, 교통 시스템, 세포 생물 시스템, 인간관계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드와 노드 간의 상호연결성이다. 네트워크의 위상구조의 특징이나 특이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드간의 연결의 정도와 연결방식으로 인함이다. 특히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허브노드가 위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이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네트워크를 살펴보아도 허브노드 중심의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가나 기업의 조직, 가정과 교회 공동체, 사회 동아리 모임 등 다양한 사회 속 다양한 조직 및 공동체의 모습은 사회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고 무작위의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형태이기 보다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인 가족도 가장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점으로 위계질서를 가지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나아가 교회 공동체, 사회나 기업 조직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허브노드를 기반으로 위계구조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부족사회의 배경 속에서 소수의 허브노드인 리더와 각 지파의 리더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음을 구약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가 조직화 되어 하나의 국가를 이룰 때에도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왕과 같은 핵심 리더와 관련 주요 조직을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허브 노드 중심의 위계구조를 가지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는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다.

먼저 위상구조적 장점은 허브노드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매우 효율적인 구조이다. 소수의 노드에 많은 연결이 되어 있기에 소수노드를 통하여 정보가 전달될 경우, 순식간에 네트워크 전체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임의의 공격 즉, 노드를 제거하거나 노드간의 연결을 막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강건성(robustness)은 특정 노드를 제거함으로 네트워크가 분리, 고립되지 않고 기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임의의 공격에 따라 특정 노드를 제거하거나 연결이 제한되었을 때,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경우는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분리되거나 해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무작위 네트워크는 특정 임계점에 이르는 노드제거로 네트워크를 붕괴할 수 있으나,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상위계층에 있는 몇몇 허브노드들에 의해 네트워크의 통합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위상구조적 견고성을 갖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는 연결선 수 지수가 3 이하일 때 임계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임의의

노드를 제거하여도 강건하며, 모든 노드를 제거해야만 네트워크가 붕괴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불균일성이 네트워크의 강건성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취약성이 된다. 무작위적 공격이 아닌, 허브 노드를 타겟으로 공격(제거)이 있을 때, 많은 수의 노드들이 허브노드와의 연결이 단절되면서 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더 많은 허브노드를 제거해 가는 과정에서 돌연 네트워크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즉 임의의 노드의 공격으로는 끄떡없던 네트워크가 허브노드의 순차적인 공격으로는 순식간에 네트워크가 고립되어 붕괴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공항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방에 있는 작은 공항 몇 개가 폐쇄된다고 하여도 큰 일이 없겠지만, 미국 시카고의 오헤어(O'Hare)공항이 폐쇄된다면 이 사실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물론 단숨에 전국적으로 항공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서울 지하철을 생각해 보면, 당고개역이나 소요산역의 폐쇄는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나가겠지만, 서울역과 사당역의 폐쇄는 비록 다른 모든 지하철 노선이 정상 운영되어도 서울 지하철노선은 1시간 이내에 멈춰버릴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허브노드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은 모든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지내는 내재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의 위상구조적인 내재적 속성을 이해한다면 강점은 극대화하고 취약점은 보완할 수 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를 에베소서에서는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베소서 4:4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 11~16 말씀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니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과 역할에 따라 한 몸을 자라게 하여 온전함에 이르기 까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의 척도 없는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머리이고,

머리를 기반으로 온 몸이 연결되고 연합될 때 온전한 한 몸이 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허브노드는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그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모양대로 온전히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몸된 지체, 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노드로서의 사명이 된다. 이때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온 몸과 마디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허브인 예수님과 단절되도록 부단히 애를 쓴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멀어져서 개별 노드가 분리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나아가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간질하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위 허브노드를 공격하여 네트워크를 분열하고 해체시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사단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공격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고 서로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따라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때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름 받은 부르심의 고귀함과 소명을 망각하고, 더 중요한 노드, 허브노드가 되고자 애쓸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는 자신의 가난함을 자랑하고 가난한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2: 4~ 31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며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즉, 자신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같이 돌보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이든지 서로 하나가 되어 상호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따른 전문성과 지체들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은 연결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강건하고 균형 잡힌 공동체, 상황에 따라 변화되며 성장하는 건강한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처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하다. 개별 노드는 네트워크 상에서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노드의 중요성은 노드들 간의 상호연결성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듯이 우리 자신의 역할과 직분에 상관없이 몸의 마디마디, 지체 한명 한명이 모두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임을 인식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긍심과 부르심의 한 소망가운데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 이러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랑으로 연결될 때, 노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강건한 네트워크를 이루듯이 여러 지체가 마디마디 연결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완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강건케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의 특이적 강건성은 허브노드로부터 온다. 따라서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연합될 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여도, 개별 노드가 연약하여 넘어질 지라도 머리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사회 네트워크는 허브노드가 공격당하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여 작은 공격에도 취약성이 생겨 순식간에 네트워크가 무너지지만,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이미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머리되시고 허브노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서로를 강건히 붙들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연약한 지체들을 공격함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아무리 많은 노드를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가 머리된 네트워크,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오히려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연약한 자일수록 귀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사랑 속에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 놀라운 생명력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교회를 보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인 교회에 소망을 두고 교회 네트워크에 접붙인 바 되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점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서로 연결되어 감은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았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러한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서 서로가 연결되어 가며 새로운 영혼들을 환대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건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런 위기는 우리가 속한 교회 나아가 사회와 개인의 강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네트워크의 강건성은 네트워크의 노드를 제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해체되는지 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전처럼 충분히 교제하고 말씀을 편히 듣기가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기 최적의 조건이다. 위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였고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만약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위기 앞에 그리스도가 아닌 허브 노드는 공격을 받고 무너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개인의 영성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었다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허브노드의 상실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에 많은 풍파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와 개인이 어떤 것을 머리에 두고 의지 하였는지 확인하여 참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허브노드 삼아 네트워크를 재형성(rewiring)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 위기는 거듭남과 회심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교회 내부적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큰 사회 네트워크의 노드로서 교회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부르심은 빛과 소금이다. 위기의 때에 피난처가 되고,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대안이 되며, 어둡고 소외된 지역에는 빛이 되고, 부패하고 무너진 지역에는 소금이 되어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다. 지금까지 풍요와 안일 속에서 잃어버렸던, 세상 속에서 부르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교회의 역할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다른 이들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회 네트워크의 선한 허브 노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허브 노드로서 빛과 소금이다. 마태복음 5 : 13~16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우리가 사회에서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려다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부르심을 다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교회가 허브노드로서 세상의 대안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길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코로나의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깊은 각성과 회개를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분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내·외부적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다. 빌립보서 2 : 1 ~ 5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위기의 상황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기꺼이 종이 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오히려 네트워크적으로 노드마다 연결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나갈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로 인해, 평소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연락하지 못했던 지체들에게도 연락하고 안부를 물으면 기존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소원했던 관계는 새로운 연결로 이어져 네트워크는 더욱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유연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는 교회를 더욱 교회답고 연약한 부분은 더욱 강건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개개인이 깨어 일어나야 하다. 네트워크와 노드 나아가 공동체와 개인은 서로 뗄 수 없는 강한 상호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연결성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더욱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건강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건강의 문제가 아닌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개인의 아픔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고통이 되어가고 있다. 동시에 공동체에 연약함과 고통이 있다면 개인이 아무리 강건하더라 하더라도 결코 편히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다. 가족, 교회, 직장, 국가 공동체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개인이 가지는 책임감과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고, 동시에 한 개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특히 많은 사회연결망과 이동성이 클수록 그 파급력이 큰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각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과 파급력에 대한 책임감과 중요성에 대해서 각성하고 깨어나야 할 것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직분과 역할과 소명에 최선을 다할 때 자신 뿐 만 아니라 자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어 주변 사람이 회복되고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영향력과 부여된 역할이 작든 크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향한 한 소망을 가지고 깨어 부르심의 소명을 다할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큰 위기가 있을지라도 서로가 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에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다.

동시에 한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는 것과 같이 책임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 만큼 근신하여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 지킬지 더욱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허브노드일수록 그에 대한 영향력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를 요구하셨다. 죄의 전염성과 파괴력을 알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엄격한 율법과 죄에 대한 자각과 경각을 요구하였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방법이었다. 이와 같이 공동체는 개개인이 상호 연결되어 만들어 지기에 한 노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히 허브노드일수록 그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은 지배적이다. 따라서 허브노드일수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 ~11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아 서로 연결되어 한 몸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은 영광받으실 것이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적인 어려움과 개인의 내적인 연약함, 공동체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음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된 자이기 때문이다. 노드들이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허브노드를 중심으로 강건하게 유지되고 성장, 확장되어 가듯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명백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패하지 않음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되신다면, 그리스도가 허브가 되는 네트워크라면, 어떤 내·외부적인 공격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 사람은 빛의 자녀답게 일어나 빛을 발하며 무너진 몸 된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각성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깨어나야 할 것이다. 이로써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회복의 기회이다.

참고문헌

개역개정 “성경”
A. L. 바라바시, “링크(Linked)”, 2002, 동아시아.